

25일 '성폭력 추방의 날' 선언

9.11.14

특별법 추진위 내달10일까지 각종행사 마련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다.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회, 김부남후원회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을 '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22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2월10일까지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를 갖는다.

서울·대구·광주에서 열릴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살풀이춤, 향락문화가 넘쳐나는 사회현실과 성폭력문화를 풍자하는 여성노래 공연,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토론회 등이 마련된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살과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성폭력 추방의 날'을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폭력 추방의 날은 81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여성모임에 참석한 각국 여

성대표들이 '11월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날'로 정해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정됐다. 이날은 60년대에 도미니카 독재공화국에 의해 세자매가 성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날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구미 여러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고,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성폭력 관련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도 좀더 많은 나라가 이날을 기념하

고 세계적 연대를 갖기로 했다.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추방주간 선포식=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성프란체스코회관 1층 강당.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계몽문화센터 아트홀.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어린이 성폭행 실태와 원인분석 발표회, 어린이노래팀 '다섯동이'의 노래마당, 성폭력 예방극, 서울시경 민원실의 호신술 시범 등이 마련된다.

△성폭력 성명서·유인물 거리

무크지 '새로쓰는 성이야기' 출간 눈길 여성해방 시각서 성과 사랑 문제 다뤄

여성문화운동집단 '또하나의 문화'가 무크 8호 <새로 쓰는 성이야기>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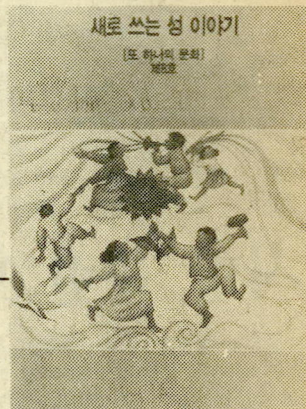
온갖 영화·소설 등에서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성과 사랑' 이야기를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한 이 책은 남녀간의 성과 사랑에 얽힌 여성억압의 현실과 구조를 파헤

치고 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직장에서의 성적 폭력 △성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등의 현장연구와 △캠퍼스 성문화 분석 △성교육 육아기 등이 실려 있

다.

여성의 혼전 성관계가 여성이 자기성의 주체가 되는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적 구속의 또다른 형태가 되고 있음을 철학적으로 규명해낸 서강대 여성학 강사 김정희씨의 '여성의 혼전 성관계 정서 분석' 논문도 흥미롭다.



9.9.1

여성 사고 파는 게임카드 회수 압력 일 여성운동가, 유엔등 국제운동시작

【도쿄=로이터 특약】일본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을 사고 파는 내용의 게임을 하는 카드를 만든 장난감회사에 이 카드를 모두 거둬들이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인권단체들과 접촉하는 등 국제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장난감회사 다카라가 만든 '인간쓰레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 카드는 수영복이나 반나체 차림의 여성 사진과 각각의 신체적

특성, 성관계 횟수 등의 설명을 담은 48장으로 돼 있으며, 카드의 여성을 사고 판 결과에 따라 돈을 따게 된다. 카드 가운데 '처녀 카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홍콩 카드'는 '아무도 원치 않는 홍콩 여성'이므로 싼 값에 팔아야 한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분노하는 것은 임신부와 태아의 사진을 담은 '임신부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가졌을 경우에는 한 차례 쉬어야 하며 낙태를 위해

서는 여벌의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다카라의 홍보관계자는 얼마 전 텔레비전에 출연해 "이것은 단순히 놀이일 뿐 여성을 비하할 뜻은 전혀 없다"며 "8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9만여 세트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만3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사카이시 여성단체 아야코 야마구치 회장은 "이 놀이는 한마디로 말해 '더러운' 것이며 홍콩인들의 분노를 자아내 국제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장난감가게에서 자유롭게 판매돼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시중에 나와 있는 카드를 모두 거둬들일 것을 다카라쪽에 촉구했다.